

무용전공 중국유학생 사회정서역량이 교우관계와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 후왕지아 씨, ** 정유진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단국대학교 음악예술대학교 무용과 박사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음악예술대학교 무용과 초빙교수
논문투고일 : 2024.01.29 논문심사일 : 2024.01.30 게재확정일 : 2024.03.02

Effect of social emotional competency on learning performance and mediating effect of friendship: targeting Chinese students majoring in dance

Huang, Jia-xin, Jung, Yu-jin · Dank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y and learning outcomes by analyzing differences in gender, study period, and dance experience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determining how the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y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majoring in dance affects companionship and learning outcom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Ver. 25.0 program for frequency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factor analysis of the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and Cronbach's α test for reliability verification. First, one-way ANOVA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differenc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ies partially differed in companionship and learning outcomes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students majoring in dance. Second, social perception, self-management, relationship management, and responsible decision-making of Chinese students majoring in da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ompanionship. It was found that self-awareness of social competency, self-management, and decision-making had a positive effect on academic commitment, which is a sub-variable of learning outcomes, and it was found that social awareness, self-management, and decision-making, which are sub-variables of social competency, had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 transfer of learning outcomes.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management, learning commitment, and learning transfer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majoring in dance, companionship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ponsible decision-making, learning commitment, and learning transfer, companionship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erception and learning transfer, companionship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operate programs for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majoring in dance to promote and improve academic activities through active interaction, cooperation, and interven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ey words> dance majors, Chinese student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ies, learning outcomes, companionship, motivation for learning

<주요어> 무용전공, 중국유학생, 사회정서역량, 학습성과, 교우관계, 학습동기

최근 유학생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유학생들의 학업의 질과 학습성과, 유학생생활 전반의 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은 국내 교육 및 연구기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유학생 관련 문제 해결에 사회정서역량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인이다. 사회정서역량은 Gardner의 “다중지능에서 발전된 정서지능으로부터 개념이 구축되기 시작했다”(우채영, 2016:1), Zins, J. E., Elias, M. J.(2007)는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인지하고 관리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사회정서역량이라고 언급하였다. 개인의 사회정서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사회정서 학습이며,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고 학생들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 기관 중 학업과 사회정서학습을 위한 협력체인 CASEL(2015)은 사회정서학습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하여 사회정서역량과 연관된 병렬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개인과 사회적 기술에 중심을 두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사회정서학습은 단기적으로는 다섯 가지 핵심적인 사회정서역량을 습득하고, 학생들의 태도를 함양하며 학습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가지고 오고자 한다. 그리고 단기성과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키고, 문제행동과 정서적 어려움의 감소, 학업적 성취를 끌어내는 행동적, 학업적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듯 사회정서학습은 학생 개인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통한 변화와 성장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식과 학급, 학교 풍토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사회정서학습은 국가별로 자국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유학생들의 학습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학생들의 사회적 능력 부족으로 인해 유학에 대한 부적응이 사회적 이슈(조선일보, 2023, <https://www.chosun.com>)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바라본다면 사회정서역량은 유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연구되고 적용되어야 할 요소로 볼 수 있다.

유학생들의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어오고 있지만, 최근 유학생들의 소속감과 의사소통 능력이 강조되며 대학생활 전반의 만족도와 적응력, 학업 전반의 성과를 위해서는 교우관계(박수경, 김은수, 소태우, 2022; 에르멩체트 바이가리, 김경란, 석동현, 2023)에 관심을 가져야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재했다.

이에 사회정서학습과 더불어 유학생들의 교우관계를 활용하여 학습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김춘화, 유홍녕, 이상수(2015:23)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한국 학업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특히,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 중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인식이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유학생들의 학업 관련하여 가장 기초적인 상호작용을 판단할 수 있는 교우관계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학습성과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무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사회적정서역량이 학습성과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정서역량은 무용전공 중국유학생의 학습성과와 교우관계에 미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연수(2023:286), 김은실(2022:112)의 연구에서 사회정서역량과 사회적역량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도 무용전공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교우관계는 학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의 문제행동을 완화하는 매개변수로 작용하며 유학생들의 심리적인 문제해결 및 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사회정서역량과 학습성과의 관계에서 교우관계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학생의 교우관계는 학업적 맥락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연구에서는 무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영향력을 살펴본 경우가 드물었다. 따라서 유학생이 지각하는 교우관계가 유의미한 매개변인으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무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 교우관계, 학습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무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인구통계학적특성(성별, 유학기간, 무용경력)에 따라 사회정서역량, 교우관계, 학습성과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무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은 교우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무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은 학습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 무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학습성과의 관계에서 교우관계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 무용학과에 재학 중인 무용전공 중국유학생 3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은 남성이 107명, 여성이 225명, 유학시간은 1~2년 214명, 3~4년 106명, 5년이상 12명, 무용경력은 1~3년 123명, 3~4년 105명, 7~10년 47명, 11년이상 57명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온라인 네이버 설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총 332부를 수집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성별 및 학습 기간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07	32.2
	여	225	67.8
유학 기간	1-2년	214	64.5
	3-4년	106	31.9
	5년 이상	12	3.6
무용경력	1-3년	123	37.0
	4-6년	105	31.6
	7-10년	47	14.2
	11년 이상	57	17.2
합계		332	100.0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무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교우관계 및 학습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인구통계학적으로 성별, 유학 기간, 무용경력을 측정하는 3문항, 독립변인으로 사회정서역량을 측정하는 25문항, 매개변인으로 교우관계를 측정하는 8문항, 종속변인으로 학습성과를 측정하는 12문항, 총 4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표 2>.

표 2. 설문지의 구성지표 및 내용

구성	하위변인	문항수
인구통계	성별, 유학기간, 무용경력	3
사회정서역량	자기인식	5
	사회적 인식	5
	자기관리	5
	관계관리	5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5
교우관계	교우관계	8
학습성과	학습몰입	7
	학습전이	5
총계		48

1) 사회정서역량

사회정서역량의 측정도구는 Zhou, E.(2012), 이상수(2018), 김별아(2021)가 사용한 설문지를 전문가들과 함께 수정·보완하여, 자기인식 5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자기관리 5문항, 관계관리 5문항,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교우관계

교우관계의 측정도구는 김용래(2000), 장소현(2010)이 사용한 설문지를 전문가들과 함께 수정·보완하여, 교우관계에서 단일변인 하위요인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학습성과

학습성과의 측정도구는 계보경, 김영수(2008), 김미진 외(2014), 김종두(2016), 박소이(2021), Holton, E. F. III.(1996), 이경오(1996), 임인숙(2011), 김권필(2016)이 사용한 설문지를 전문가들 함께 수정·보완하여, 학습몰입 7문항, 학습전이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5.0을 사용, 분석하였다. 각 변인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ANOVA 분석, 다중회귀분석과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치에 대한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4.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무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분요인은 .593~.828으로, 신뢰도 계수는 .822~.894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교우관계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분요인은 .750~.887로, 신뢰도 계수는 .908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학습성과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분요인은 .515~.843로, 신뢰도 계수는 .873~.927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3. 사회정서역량 요인분석과 신뢰도(KMO: 0.935)

요인	공통성	적재치	고유값	분산 %	누적	신뢰도
사회적 인식9	.695	.733	3.619	15.734	15.734	.890
사회적 인식8	.704	.727				
사회적 인식7	.723	.694				
사회적 인식10	.636	.685				
사회적 인식6	.712	.653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24	.794	.828	3.482	15.141	30.875	.894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23	.759	.775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25	.764	.771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22	.651	.647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21	.610	.612				
자기관리14	.775	.815	3.281	14.267	45.141	.892
자기관리11	.740	.796				
자기관리12	.771	.777				
자기관리13	.722	.765				
관계관리19	.745	.778	3.021	13.136	58.277	.856
관계관리17	.744	.736				
관계관리18	.703	.735				
관계관리16	.640	.724				
자기인식3	.743	.784	2.914	12.670	70.947	.822
자기인식2	.710	.737				
자기인식1	.673	.712				
자기인식4	.608	.610				

표 4. 교우관계 요인분석과 신뢰도(KMO: 0.896)

요인	공통성	적재치	고유값	분산 %	누적	신뢰도
교우관계1	.677	.823	4.126	68.768	68.768	.908
교우관계2	.712	.844				
교우관계3	.719	.848				
교우관계4	.788	.887				
교우관계5	.667	.817				
교우관계7	.563	.750				

표 5. 학습성과 요인분석과 신뢰도(KMO: 0.933)

요인	공통성	적재치	고유값	분산 %	누적	신뢰도
학습전이9	.798	.843	4.100	37.274	37.274	.927
학습전이8	.785	.812				
학습전이10	.768	.805				
학습전이12	.751	.804				
학습전이11	.751	.754				
학습물입1	.638	.768	3.538	32.164	69.438	.873
학습물입3	.756	.762				
학습물입2	.647	.746				
학습물입4	.578	.692				
학습물입5	.628	.662				
학습물입7	.530	.515				

III 연구결과

1. 무용전공 유학생의 성별, 유학기간 및 무용 경력별 차이 특성

이 연구에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을 중심으로 사회정서역량, 교우관계, 학습성과에 대한 차이성을 알아보고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에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실시하였다.

1) 성별 변수에 대한 차이

성별 집단에 대한 변수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 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이 연구의 변수에 대한 대상자의 성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기관리와 관계관리에서 유의수준 $p < 0.05$ 이하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성별 변수 인식수준 차이

요인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F값	t(p)
자기관리	1	107	3.6215	.82942	.08018	2.876	3.395(0.001)**
	2	225	3.3122	.74889	.04993		
관계관리	1	107	4.0000	.66588	.06437	.705	2.084(0.038)*
	2	225	3.8433	.62782	.04185		

* $p < .05$, ** $p < .01$, *** $p < .001$

2) 유학기간 변수에 대한 차이

유학기간 집단에 대한 변수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 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으며 이 연구의 변수에 대한 대상자의 유학기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인식에서만 유의수준 $p < 0.05$ 이하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유학기간 변수 인식수준 차이

요인	유학기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F값	p
사회적인식	1	214	3.7726	.64008	.04375	3.105*	.046
	2	106	3.8066	.60603	.05886		
	2	12	4.2361	.59228	.17098		

* $p < .05$, ** $p < .01$, *** $p < .001$

3) 무용경력 변수에 대한 차이

무용경력 집단에 대한 주요 변수별 인식수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 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으며 이 연구의 변수에 대한 대상자의 무용경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인식, 관계관리와 자기인식에서만 유의수준 $p < .05$ 이하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무용경력 주요 변수 인식수준 차이

요인	유학기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F값	p
사회적 인식	1	123	3.8171	.65196	.05879	3.137*	.026
	2	105	3.6841	.60399	.05894		
	3	47	3.7766	.64576	.09419		
	4	57	3.9971	.58967	.07810		
관계관리	1	123	3.8679	.65312	.05889	3.774*	.011
	2	105	3.7952	.60723	.05926		
	3	47	3.8830	.61204	.08928		
	4	57	4.1404	.66651	.08828		
자기인식	1	123	3.9289	.61448	.05541	4.444**	.004
	2	105	3.8905	.62493	.06099		
	3	47	4.0691	.53340	.07780		
	4	57	4.2193	.56708	.07511		

* $p < .05$, ** $p < .01$, *** $p < .001$

2. 다중회귀분석

1) 무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정서역량의 하위요인인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관리,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교우관계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단계 선택(stepwise)을 선택하였다. 먼저 사회정서역량의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관리,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 $F=65.081(p<.01)$ 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 수 있는 더빈왓슨의 기준치는 2.0에 값이 가깝게 나타나(1.991) 변수 간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각 변인별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9).

첫째, 사회정서역량의 자기인식은 교우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정서역량의 사회적 인식은 교우관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347^*$).

셋째, 사회정서역량의 자기관리는 교우관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4.184^{***}$).

넷째, 사회정서역량의 관계관리는 교우관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6.686^{***}$).

다섯째, 사회정서역량의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은 교우관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000^*$).

표 9. 다중회귀분석 결과(사회정서역량 \Rightarrow 교우관계)

변수	B	S.E	β	t	p	공차	VIF
상수	.679	.197	-	3.442	.001	-	-
자기인식	-.005	.054	-.005	-.102	.919	.589	1.698
사회적 인식	.135	.058	.139	2.347	.020	.438	2.282
자기관리	.191	.046	.219	4.184	.000	.559	1.788
관계관리	.388	.058	.370	6.686	.000	.501	1.995
의사결정	.123	.062	.117	2.000	.046	.447	2.237

* $p<.05$, ** $p<.01$, *** $p<.001$ / $F=65.081^{**}$ /더빈왓슨 : 1.991 / Adjusted R^2 : .492

2) 무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정서역량의 하위요인인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관리,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학습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단계 선택(stepwise)을 선택하였다. 먼저 사회정서역

량의 하위요인인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관리,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 $F=87.807(p<.05)$ 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 수 있는 더빈왓슨의 기준치는 2.0에 값에 가깝게 나타나(2.087) 변수 간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정서역량의 하위요인인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관리,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이 학습전이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 $F=56.543(p<.01)$ 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 수 있는 더빈왓슨의 기준치는 2.0에 값에 가깝게 나타나(2.003) 변수 간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각 변인별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0, 11).

첫째, 사회정서역량의 자기인식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886^{***}$).

둘째, 사회정서역량의 사회적 인식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정서역량의 자기관리는 학습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6.430^{***}$).

넷째, 사회정서역량의 관계관리는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정서역량의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5.866^{***}$).

여섯째, 사회정서역량의 자기인식은 학습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사회정서역량의 사회적 인식은 학습전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586^*$).

여덟째, 사회정서역량의 자기관리는 학습전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6.704^{***}$).

아홉째, 사회정서역량의 관계관리는 학습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째, 사회정서역량의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은 학습전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917^{***}$).

표 10. 다중회귀분석 결과(사회정서역량 ⇨ 학습몰입)

변수	B	S.E	β	t	p	공차	VIF
상수	.382	.178	-	2.154	.032	-	-
자기인식	.188	.048	.183	3.886***	.000	.589	1.698
사회적 인식	.089	.052	.093	1.708	.089	.438	2.282
자기관리	.264	.041	.311	6.430***	.000	.559	1.788
관계관리	.015	.052	.015	.297	.767	.501	1.995
의사결정	.326	.056	.317	5.866***	.000	.447	2.237

* $p < .05$, ** $p < .01$, *** $p < .001$ / $F = 87.807^*$ / 더빈왓슨 : 2.087 / Adjusted R^2 : .567

표 11. 다중회귀분석 결과(사회정서역량 ⇨ 학습전이)

변수	B	S.E	β	t	p	공차	VIF
상수	.650	.220	-	2.961	.003	-	-
자기인식	.047	.060	.042	.789	.431	.589	1.698
사회적 인식	.166	.064	.158	2.586*	.010	.438	2.282
자기관리	.340	.051	.363	6.704	.000	.559	1.788
관계관리	.006	.065	.005	.089	.929	.501	1.995
의사결정	.269	.069	.237	3.917***	.000	.447	2.237

* $p < .05$, ** $p < .01$, *** $p < .001$ / $F = 56.543^{**}$ / 더빈왓슨 : 2.003 / Adjusted R^2 : .456

3. 매개회귀분석

사회정서역량과 학습성과의 관계에서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 중 종속변수인 학습성과와 매개변수인 교우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대상으로 Baron, R. M. & Kenny, D. A.(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과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2>.

첫째, 자기관리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교우관계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41 \rightarrow .433$).

둘째,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교우관계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51 \rightarrow .445$).

셋째, 사회적 인식과 학습전이의 관계에서 교우관계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55 \rightarrow .294$).

넷째, 자기관리와 학습전이의 관계에서 교우관계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13 \rightarrow .380$).

다섯째,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과 학습전이의 관계에서 교우관계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60 \rightarrow .299$).

표 12.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검정단계	β	t	R^2	매개효과
자기관리	단계1	-.005	-.102	.500	부분매개
	단계2	.641	15.186***	.411	
	단계3(독립)	.433	9.347***	.510	
학습몰입	단계3(매개)	.377	8.143***		
의사결정	단계1	.117	2.000	.500	부분매개
	단계2	.651	15.598***	.424	
	단계3(독립)	.445	9.545***	.514	
학습몰입	단계3(매개)	.364	7.814***		
사회적 인식	단계1	.139	2.347	.500	부분매개
	단계2	.555	12.115***	.308	
	단계3(독립)	.294	5.992***	.457	
학습전이	단계3(매개)	.466	9.509***		
자기관리	단계1	.219	4.184	.500	부분매개
	단계2	.613	14.090***	.376	
	단계3(독립)	.380	8.118***	.498	
학습전이	단계3(매개)	.420	8.968***		
의사결정	단계1	.117	2.000	.500	부분매개
	단계2	.560	12.283***	.314	
	단계3(독립)	.299	6.064***	.458	
학습전이	단계3(매개)	.461	9.372***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이 연구는 무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교우관계와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고 사회정서역량과 학습성과의 관계에서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1. 무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성별, 학습 기간별 차이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사회정서역량, 교우관계, 학습성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 자기관리, 관계관리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유학기간에 따른

사회적인식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무용경력에 따른 사회적인식, 관계관리, 자기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 자기관리와 관계관리 모두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여성 집단에게 자기관리와 관계관리를 위한 집중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3점 중 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아니기에 양측 모두 개선할 방안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2018년 실시된 김은수, 한예리, 김효선(2018)의 연구에서도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대학생활 및 서비스 등 유학생생활 전반에 만족도를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자와의 관계성에서도 남학생이 더 높은 척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심지어 사회적응을 위한 생활비 사용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금액을 소비하여 대학 적응, 교수자와의 관계, 물리적 환경 전반에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적응력을 보였는데, 이는 2023년 현재 시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에 여성들을 위한 개선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유학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인식이 높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유학기간이 길어질수록 적응력이 높아져 사회적인식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함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기간이 길어질수록 긍정적 인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연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을 경우, 국내 대학사회의 문제를 재탐색해야 될 수도 있었기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무용경력에서도 경력이 높을수록 사회적인식, 관계관리, 자기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력의 경우 물리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학교차원에서 해결점은 없지만, 유학 전 국내 대학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이나 입학과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본다면 사회정서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관계관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프로그램 형태를 무용전공 중국유학생들에게 최대한 적용하여 인식 및 역량 함양에 주력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정서역량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인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관리,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관리,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이 교우관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김애경, 김성봉(2018)이 발표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우관계는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이므로 교우관계에

서 근접성과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는데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은 자신감과 안정감을 가지게 되어 학습동기가 높고 학교 규칙을 잘 지키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학교생활을 하여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윤영주·장소영(2016)의 연구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친밀하고 지지적인 교우관계를 형성했는가의 여부는 여러 변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평소에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마주하고 이해하는 등의 자기인식 기술과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습득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정서 기술(이맹, 2021)과 자기조절(임규연, 김시원, 김영주, 2015), 적응력(김수진, 2023) 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메타인지를 활용하여 유학생 대상의 교육법을 대학 차원에서 적용해보는 것도 교우관계와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무용전공 중국유학생 스스로 대학 사회에 대해 탐색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스킬을 기르고 중국유학생들 간의 소통을 포함하여 한국 학생들과 관계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노력은 유학생 개인 차원에서 극복하기에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에 학과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3. 사회정서역량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인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관리,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이 학습성과의 하위변인인 학업몰입, 학습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인 자기인식, 자기관리, 의사결정이 학습성과의 하위변인인 학업몰입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역량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의사결정이 학습성과의 하위변인인 학습전이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조절이 학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권금주(201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팀워크와 같은 관계관리가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박영순, 천경희(2020)의 연구,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김정숙, 김효숙(2020:105)의 연구와 일부 일치한다. 더불어 CASEL(2015)이 자기 정서의 인식과 조절, 자기의 목표설정과 타인에 대한 공감, 대인관계 능력,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통하여 역량을 함양하고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발표하였듯이 개인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전략이 활용된다면 학습에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결국 유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정서역량의 하위요인인 자기인식, 사회적인

식, 자기관리, 관계관리, 의사결정 등과 같이 타인과의 교류, 스스로와의 소통을 통해 관계적 능력과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점에서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무리가 있다. 유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 학생과의 소통보다는 유학생들 간의 소통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유학생들 간의 소통만으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도 문제점을 나타낼 것이며, 심화된 측면인 대학 강의에 대한 학습성고를 높이는 데는 더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중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간의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4. 사회정서역량과 학습성과의 관계에서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역량의 하위변인인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관리,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과 학습성과의 하위변인인 학업몰입, 학습전이의 관계에서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자기관리와 학습몰입, 학습전이의 관계에서 교우관계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과 학습몰입, 학습전이의 관계에서 교우관계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인식과 학습전이의 관계에서 교우관계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전공 중국유학생들의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이해하며,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학습상황에 있어 친밀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선행연구(김희정, 2012; 신현숙, 2005; 홍주영, 2002)를 통해서도 언급하였듯이 교우관계가 긍정적이면 학생에게 심리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반대로 교우관계가 부정적이면 심리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학습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의 교우 그리고 교수와의 경험이 학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송윤숙, 박지연 (2023:3)의 연구와도 맥을 함께 한다. 이렇듯 학습성과가 높아지려면 체계적인 학업지원과 교우관계 시스템이 필요하며,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능력, 난관 속에서도 계획을 실행하려는 것, 친절과 상냥함, 집단에 대한 충실성, 신중함, 타인에게 웃음을 주는 것 등의 강점을 인식하고 발휘하면 긍정적인 교우관계와 학습성과를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결국 무용전공 중국유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교우관계 관련 프로그램을 확장시켜 대인관계에서 활발하게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무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교우관계와 학습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데 있어 인구통계학적특성 중 성별, 유학기간, 무용경력의 차이를 분석하여 사회정서역량이 교우관계와 학습성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무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토대로 실시한 결과 사회정서역량이 교우관계와 학습성과에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무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교우관계의 관계를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정서역량의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관리,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이 교우관계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다. 사회적역량의 자기인식, 자기관리, 의사결정이 학습성과의 하위변인인 학업몰입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역량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의사결정이 학습성과의 학습전이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셋째,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역량의 하위변인인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관리,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과 학습성과의 하위변인인 학업몰입, 학습전이의 관계에서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관리와 학습몰입, 학습전이의 관계에서 교우관계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과 학습몰입, 학습전이의 관계에서 교우관계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인식과 학습전이의 관계에서 교우관계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제한 사항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중국유학생 중 무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보편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국가별, 전공별 등을 구분하는 등 연구대상 세분화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용전공 중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적응 증진 방안 및 시사점을 제공해줄 후속연구에서는 심도있는 관찰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정서역량, 학습성과, 교우관계 등의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이때 인터뷰 등의 질적연구를 활용하여 유학생들의 구체적인 학업 경

험을 관찰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무용전공 중국유학생들의 다양한 변인들에 관한 논문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국유학생과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관련 비교연구가 미흡하다. 이러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유학생들에게 중요한 변인들에 대한 의미가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유학생들만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한층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계보경, 김영수 (2008), “증강현실 기반 학습에서 매체특성, 현존감, 학습몰입, 학습효과의 관계 규명”, 한국 교육공학회, **교육공학연구 24(4)**, 193-224.
- 권금주(2010), “자기조절학습 전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e-learning 사회복지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3)**, 1717-1728.
- 김권필(2016), “일터학습이 학습전이와 기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김미진, 강영주 (2014), “아동미술치료 프로그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예술심리 치료연구 10(3)**, 87-109.
- 김별아(2021),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수진(2023), “대학생이 인식한 메타인지 전략과 그것이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5)**, 253-262.
- 김애경, 김성봉 (2018),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25(10)**, 273-297.
- 김용래(2000), “학교학습동기척도(A)와 학교적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弘益大學校 敎育硏究所, **敎育硏究論叢 (17)**, 3-37.
- 김은실(2022), “사회적 역량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인적자원개발연구 25(1)**, 111-135.
- 김은수, 한예리, 김효선(2018),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및 대학서비스가 한국체류에 미치는 영향 -남·녀 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人文科學 70**, 149-176.
- 김정숙, 김효숙 (2020), “미용대학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학습자의 학습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 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6(2)**, 103-113.

- 김종두(2016), “대학생 배심토론 수업의 효과와 문제점”,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0(6)**, 251-258.
- 김춘화, 유홍녕, 이상수(2015),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아시아교육연구 16(1)**, 23-41.
- 김희정(2012), “교사-학생관계 및 학습동기와 학습몰입간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소이(2021), “온라인 교육서비스품질이 학습전이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자 만족 및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 환대산업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대학원.
- 박수경, 김은수, 소태우(2022), “유학생 관점에서 바라본 학교 밖 소속감에 관한 건강지리학적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8(3)**, 323-337.
- 박영순, 천경희(2020), “의과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팀워크 역량이 졸업역량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807-826.
- 송윤숙, 박지연(2023),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의 학업도전, 교수와 학습, 교수와의 경험이 학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원, **교육종합연구 21(2)**, 1-19.
- 신현숙(2005), “미술치료가 신체 학대받은 아동의 자기표출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연구 12(2)**, 383-407.
- 에르덴척트 바이가“몽골 유학생의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와 교수관계에 따른 대학생할 적응”, 전북대리, 김경란, 석동현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47(1)**, 49-79. (2023),
- 우채영(2016), “사회정서학습(SEL)의 교육적 의의”,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23(3)**, 163-185.
- 윤영주, 장소영(2016), “베트남 유학생의 교수관계 갈등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21 7(2)**, 399-415.
- 이경오(1996), “외국 대학과의 자매결연 현황 및 개선 방안: 학생교류를 중심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84**, 79-87.
- 이맹(2021), “사회예술교육으로서 청소년의 피아노학습이 메타인지능력과 사회정서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교육학회, **예술교육연구 19(3)**, 41-56.
- 이상수(2018), “대학생들의 성취정서와 사회정서역량 간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3)**, 929-952.
- 이연수(2023), “그림책을 활용한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교수관계와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학술대회 (1)**, 284-305.
- 임규연, 김시원, 김영주(2015), “협력학습 환경에서 메타인지적 자기조절, 정서조절과 성취도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0)**, 685-707.
- 임인숙(2011), “여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의 차이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소현(2010),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부모양육행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홍주영(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CASEL(2015), *CASEL guide: Effective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programs: Middle and high school edition*, Chicago, IL: CASEL.
- Holton, E. F. III. "The flawed four-level evaluation model",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7(1), 5-21.
- Zins, J. E., Elias, M. J.(2007),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Al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233-255.
- Zhou, M. & Ee, J.(2012), "Development of the Social Emoti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SECQ)",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motional Education* 4, 27-42.

조선일보(2023), 번역기로 소통하는데, 이젠 중유학생 전용 강의까지 개설.
2023.2.15.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3/02/13/DTDTBLYHLVD3DHX6TLNG5L5DO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검색일자. 2024.02.01